

2025.04.02.(수) 증권사리포트

▶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삼양식품

숨 고르기는 끝났다

[출처] IBK투자증권 김태현 애널리스트

1Q25 실적,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

기존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108만 원을 유지한다.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845억 원 (+25.6% yoy), 981억 원(+22.5% yoy)으로 전망된다. 우호적인 환율 흐름과 수출 데이터를 반영해 기존 추정치(4,754억 원 / 951억 원)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을 2~3% 소폭 상향 조정했으며 컨센서스(4,867억 원 / 1,008억 원)에 대체로 부합하겠다. 원맥 공급 단가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며, 전분 등 주요 투입 원가 상승 부담도 제한적이다. 다만 위탁용역비(현지 물류 창고 및 용역)와 수출제비 및 운반비 등 수출 관련 비용 증가로 인해 매출원가율이 58.3%(+0.7%p yoy)로 상승할 전망이다.

해외 실적 성장 및 점유율 상승세 지속

면·스낵 수출이 3,821억 원(+33.6% yoy)으로 예상된다. 올해 1분기 원·달러 환율은 1,454원(+9.2% yoy)으로 상승했다. 또 라면 수출 총액(관세청 기준)이 1월과 2월 각각 25.4%(yoy), 30.4%(yoy) 늘었고, 3월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특히 춘절 시점차로 인해 1~2월 누계 중국 라면 수출이 5,024만 달러(+117.6% yoy)로 대폭 증가했고, 같은 기간 미국 라면 수출액은 3,892만 달러(+22.7%)로 늘었다. 작년 10월 미국 월마트에서 인스턴트 누들 매대로 이동한 이후, 올해 2월 기준 일본 도요수산(브랜드: 마루찬)에 이어 라면 카테고리 매출 2위로 올라선 것으로 파악된다. 네덜란드에서도 라면 전체 판매액 1위(2023~2025.02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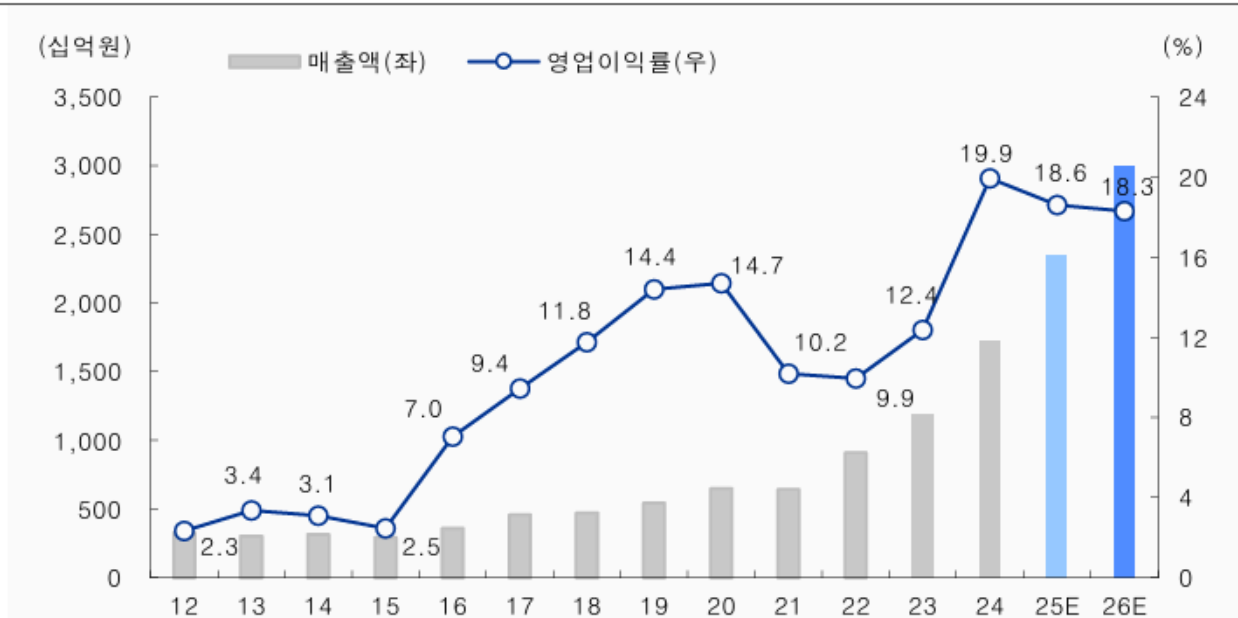
세계가 밀양 2공장 준공을 기다린다

현재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현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6월 준공 예정인 밀양 2공장의 초기 가동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단위:십억원,배)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1,193	1,728	2,343	2,997	3,923
영업이익	148	345	436	548	698
세전이익	156	352	434	546	700
지배주주순이익	126	272	337	425	541
EPS(원)	16,761	36,106	44,730	56,358	71,774
증가율(%)	58.2	115.4	23.9	26.0	27.4
영업이익률(%)	12.4	20.0	18.6	18.3	17.8
순이익률(%)	10.6	15.7	14.4	14.2	13.8
ROE(%)	24.8	39.4	34.7	32.3	30.8
PER	12.9	21.2	18.9	15.0	11.8
PBR	2.9	7.1	5.7	4.2	3.2
EV/EBITDA	9.6	14.8	13.7	10.9	8.5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삼양식품 연결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삼양식품, IBK투자증권



LG에너지솔루션

전방 수요 확인 먼저

[출처] IBK투자증권 이현욱 애널리스트

25년 1분기,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 상회

LG에너지솔루션의 1Q25 영업실적은 매출액 5조 9,060억원(QoQ -8.5%), 영업이익 1,010억원(QoQ 흑전, AMPC 3,850억원 반영), OPM 1.7%(QoQ +5.2%p)로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매출액 5.9조원, 영업이익 350억원)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1Q25 가이드언스의 원/달러환율 가정은 1,400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실제 1분기 평균 1,453원을 기록한 영향이다. 중대형 EV 부문의 경우 GM의 재고 조정과 유럽향 배

터리 출하량 감소로 3.7조원(QoQ -6.4%)으로 전망한다. 소형 전지는 고객사(EV항)의 FL 버전 출시로 1분기를 시작으로 본격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직 불확실성 지속되는 단계, 수요 확인 먼저

2025년의 유럽 시장은 5년만의 탄소 배출 강화 시행의 해인만큼 유럽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가 강할 것으로 당초 예상하였다. 실제로 25년 2월 YTD 기준 BEV 판매량은 +31.4% 증가하며 배터리 수요 증가가 기대되었으나, 실제 LGES의 유럽향 배터리 출하량은 25년 2월 YTD 기준 -12.9% 감소하였다. 3월 5일 Action Plan의 발표로 2025년의 유럽 전기차 수요는 당초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전방 수요 회복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심지어 GM의 주류 전기차 모델인 Equinox(판매량 1위)와 Blazer(판매량 2위)는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있어, 미국 정부의 관세 도입 발표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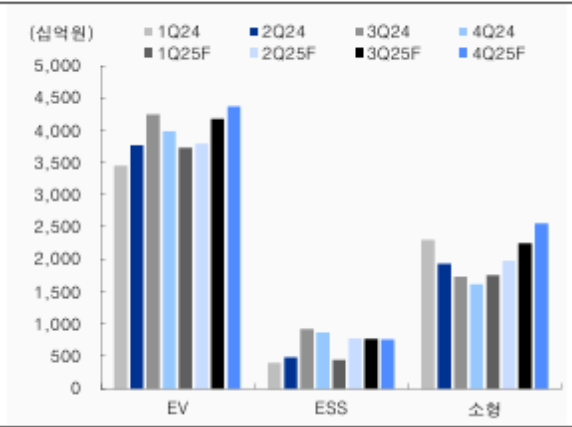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00,000원 유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500,000원으로 유지한다. 대다수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2024년 업황을 상저하고를 제시한바 있으나, 실제로는 수요 회복 지연으로 실적 부진이 지속된 바 있다.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방 산업 수요 회복 확인이 우선이다.

(단위:십억원,배)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33,745	25,620	27,281	31,855	36,014
영업이익	2,163	575	1,911	4,315	5,708
세전이익	2,043	349	1,793	4,106	5,507
지배주주순이익	1,237	-1,019	1,173	2,507	3,402
EPS(원)	5,287	-4,354	5,014	10,713	14,538
증가율(%)	60.0	-182.3	-215.2	113.7	35.7
영업이익률(%)	6.4	2.2	7.0	13.5	15.8
순이익률(%)	4.9	1.3	5.4	9.8	11.8
ROE(%)	6.4	-4.9	5.4	10.5	12.6
PER	80.9	-79.9	66.7	31.2	23.0
PBR	5.0	3.9	3.5	3.1	2.7
EV/EBITDA	24.7	28.7	23.6	11.9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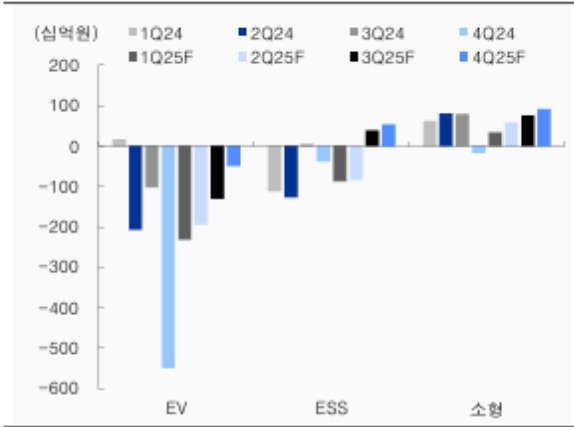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LG에너지솔루션 부문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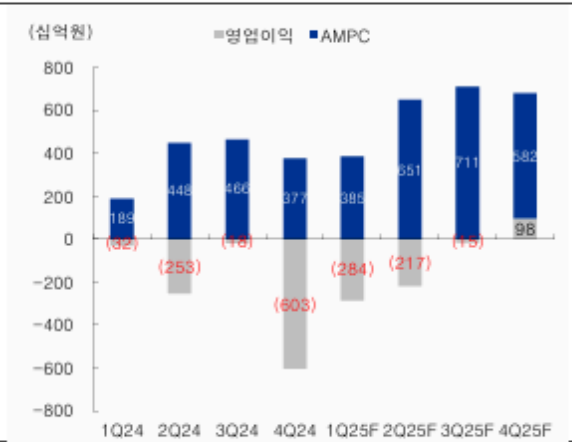
자료: LG에너지솔루션, IBK투자증권

그림 2. LG에너지솔루션 부문별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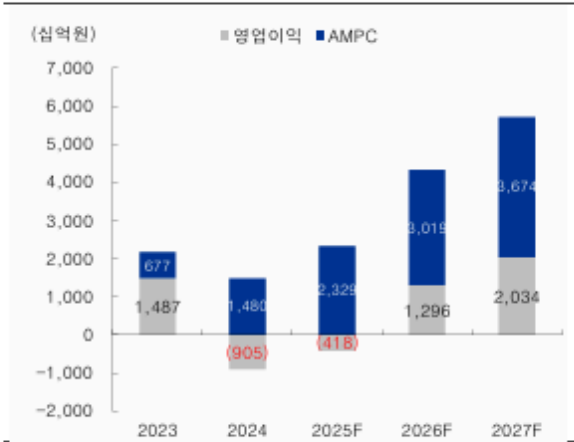
자료: LG에너지솔루션, IBK투자증권

그림 3. LG에너지솔루션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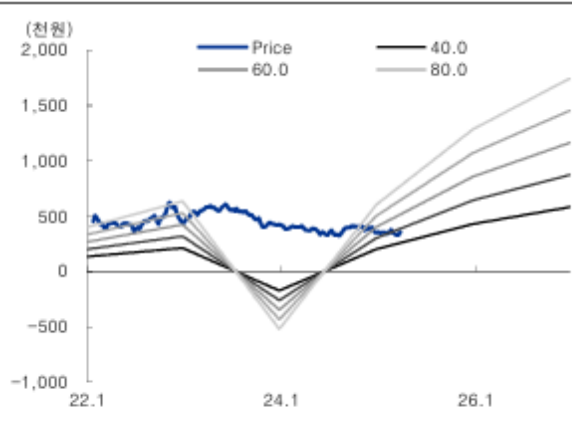
자료: LG에너지솔루션, IBK투자증권

그림 4. LG에너지솔루션 연간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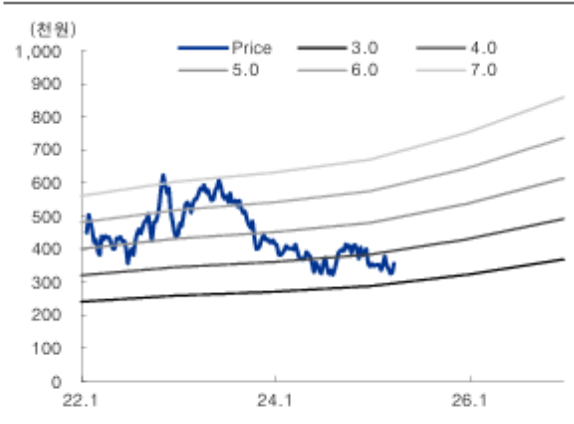
자료: LG에너지솔루션, IBK투자증권

그림 5. LG에너지솔루션 12MF PER 밴드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그림 6. LG에너지솔루션 12MF PBR 밴드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SK하이닉스

1Q25 Preview : 부각될 실적 안정성

[출처] NH투자증권 류영호 애널리스트

중장기 기술 변화를 선도 중

SK하이닉스에 대해 투자 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290,000원으로 상향 (기존 270,000원). 당사는 메모리 업체 대부분이 NAND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감산 효과는 예상보다 빠를 것을 예상. 실제 NAND 가격은 2분기부터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DRAM 역시 재고 조정 및 공급 축소의 영향으로 가격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동사는 이번 짧은 하락 사이클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통해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성 유지가 가능함을 확실하게 입증. 하반기에는 HBM3E 12단 출하 확대까지 더해지며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 실수요와 선제적 재고 확보 영향 강도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시장에 남아 있는 상황인 만큼 안정적인 실적 유지가 가능한 동사의 매력도는 더욱 부각될 전망. 중장기 기술 변화를 선도 중인 동사를 업종 Top Pick으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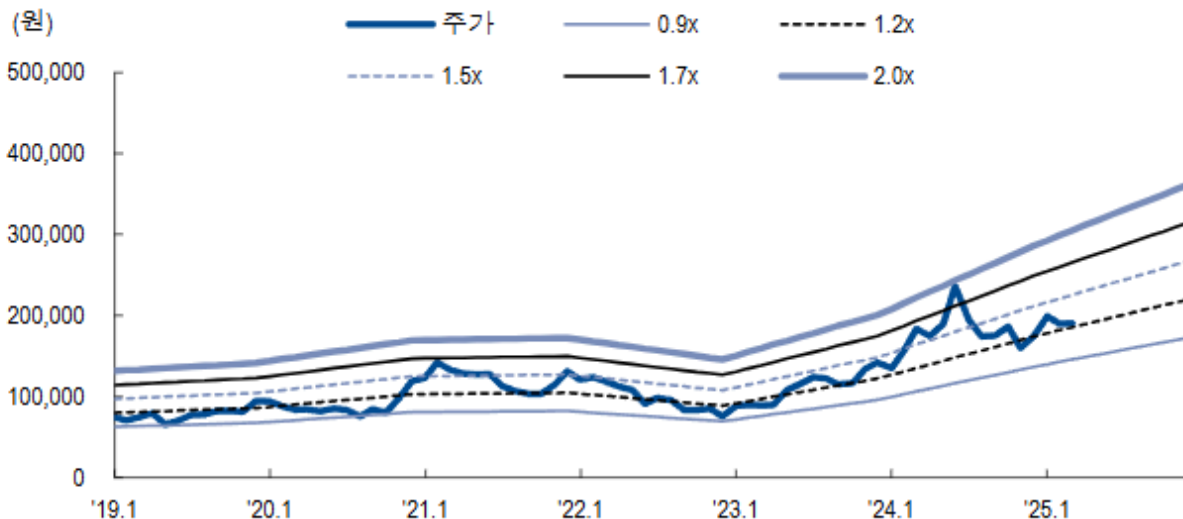
비수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이어갈 것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6.9조원(+36.4% y-y, -14.3% q-q), 영업이익 6.7조원 (+133% y-y, -16.8% q-q)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전망. 통상적인 비수기로 감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HBM 매출이 DRAM 매출의 40.2%를 차지하며 하방을 지지할 것. 다만 NAND는 보수적인 출하로 부진이 예상됨. DRAM의 B/G, ASP 증감률은 전분기대비 -13.6%/+1.8%, NAND의 B/G, ASP 증감률은 전분기대비 -21.0%/-15.0% 전망

	2024	2025E	2026F	2027F
매출액	66,193	80,307	86,325	82,009
증감률	102.0	21.3	7.5	-5.0
영업이익	23,467	35,143	37,846	36,663
증감률	-403.6	49.8	7.7	-3.1
영업이익률	35.5	43.8	43.8	44.7
(지배지분)순이익	19,789	31,742	29,364	29,481
EPS	27,182	43,602	40,334	40,496
증감률	-317.2	60.4	-7.5	0.4
PER	6.4	4.4	4.7	4.7
PBR	1.7	1.3	1.0	0.9
EV/EBITDA	3.8	2.4	1.8	1.3
ROE	31.1	35.4	24.6	20.0
부채비율	62.2	40.2	29.2	22.9
순차입금	9,038	-20,116	-43,236	-70,751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1. SK하이닉스 12M Forward PBR 밴드차트



자료: SK하이닉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현대홈쇼핑

주주환원 정책 확대 기대

[출처] NH투자증권 주영훈 애널리스트

저평가 매력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65,000원 유지. 본업인 홈쇼핑 사업부문의 성장성이 높지 않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한 구조. 현대L&C, 한섬 등 자회사 실적 비중이 높아져 있는 만큼 이를 통해 '25년 연결 실적 성장 가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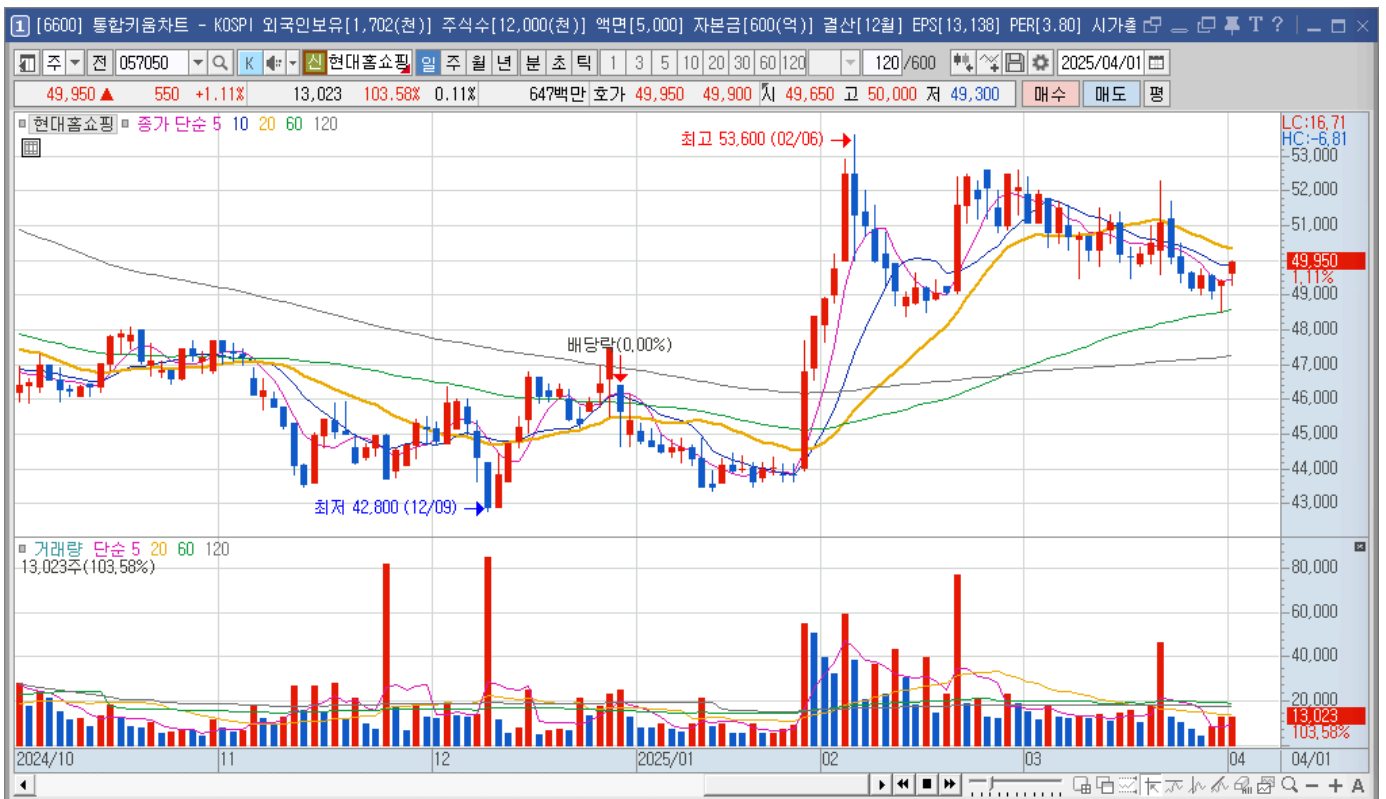
동사의 투자 매력은 낮은 밸류에이션과 높은 배당수익률에 있음. '25년 시가배당 수익률은 5.9%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유통 업종 내 상위권에 해당. 동사는 아직까지 기업가치재고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음. 그러나 현대백화점그룹 내 기업들이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 확대 기초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사 또한 관련 기대감을 가져볼 만함. 현재 자사주 또한 6.6%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사주 소각을 비롯한 주주환원이 시행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

1분기, 전년 대비 소폭 하락 전망

1Q25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428억원(-5% y-y), 545억원(-6% y-y)으로 추정. 홈쇼핑 본업의 취급고는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추정. 업황 자체가 부진한 가운데, 동사 또한 마진율이 낮은 상품을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 다만,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송출수수료의 증가가 크지 않으며 전사 차원의 비용 절감 기초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익성 방어는 가능할 전망. 자회사들의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악화될 전망. 특히, 추운 날씨로 의류 판매가 부진했던 한섬의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해 보임. 다만, 전년도 기저를 고려할 때 2분기부터는 실적 반등이 예상되어 동사의 연결 실적 성장을 이끌 전망

	2024	2025E	2026F	2027F
매출액	3,853	3,799	3,876	3,956
증감률	86.7	-1.4	2.0	2.0
영업이익	130	169	183	196
증감률	117.1	30.2	7.9	7.0
영업이익률	3.4	4.5	4.7	4.9
(지배지분)순이익	158	156	174	187
EPS	13,138	13,001	14,502	15,593
증감률	15.8	-1.0	11.5	7.5
PER	3.5	3.8	3.4	3.2
PBR	0.2	0.3	0.2	0.2
EV/EBITDA	8.2	7.3	6.8	6.3
ROE	7.4	6.9	7.3	7.4
부채비율	34.9	34.0	33.0	31.9
순차입금	176	142	52	-45

단위: 십억원, %, 원, 배



POSCO홀딩스

철강/인프라는 개선 예상. 에너지소재는 아직

[출처] 신한투자증권 박광래 애널리스트

전년동기대비 이익 증가 및 에너지소재 흑자전환이 필요

'25년 매출액 74.9조원(+3.1% YoY), 영업이익 2.96조원(+36.1%)으로 4년 만에 이익 증가 가능할 전망. 에너지소재 사업에서는 '26년 리튬 사업에서의 흑자 전환 등과 함께 이익 레버리지 극대화되며 주가 상승 견인할 전망

1Q 영업이익 5,715억원(+495.4% QoQ) 전망. 컨센서스 소폭 하회 예상

1분기 영업이익 5,715억원(+495.4% QoQ, 이하 QoQ)으로 시장 기대치(6,174억원) 소폭 하회 전망.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은 철강 4,141억원(+24.0%), 인프라 3,389억원(+213.8%), 에너지소재 -540억원(적자지속) 예상

[철강] 판매량은 계절적 비수기 돌입과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4분기 대비 소폭 감소(4Q24 846.5만톤, 1Q25 836.3만톤) 예상. 철강 스프레드(=판매단가-투입원가) 개선 및 4분기 부진의 기저효과가 반영되어 전분기대비 이익 증가가 가능할 것. 인건비 관련 일회성 비용이 4분기에 이어 1분기에도 일부 반영되는 점은 이익 개선 폭을 제한할 전망

[인프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에서의 매출 증가, 트레이딩 물량 확대, 일회성 비용 반영의 기저 효과로 실적이 전분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 예상. 지방 주택 미분양 및 해외 플랜트 손실 등으로 1,500억원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던 포스코이앤씨는 1Q 영업이익 396억원 달성 가능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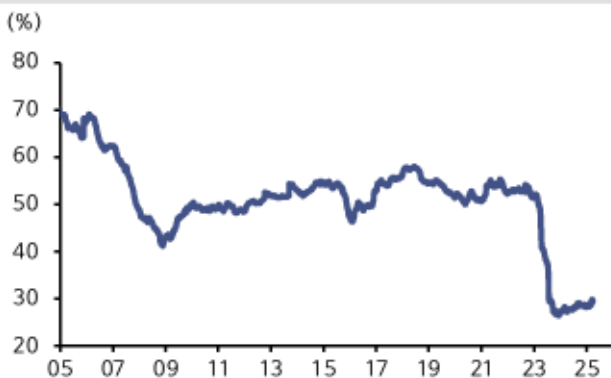
Valuation & Risk: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려보다는 기대를 가져야할 때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30,000원 유지.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잠정관세율(27.91~38.02%) 결정. 열연에서도 중국/일본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진행 중. 철강 부문에서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대목. 미국 내 철강 가격의 상승과 고환율 환경 지속은 수출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미국 관세 이슈가 우려만큼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망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23	77,127.2	3,531.4	1,698.1	24.9	3.2	0.8	7.7	2.0
2024	72,688.1	2,173.6	1,094.9	19.4	2.0	0.4	6.2	3.9
2025F	74,943.9	2,957.4	1,598.4	14.2	2.9	0.4	5.8	3.6
2026F	78,180.8	3,599.6	2,002.8	11.3	3.5	0.4	5.4	3.6
2027F	80,616.5	3,865.0	2,119.3	10.6	3.8	0.4	5.4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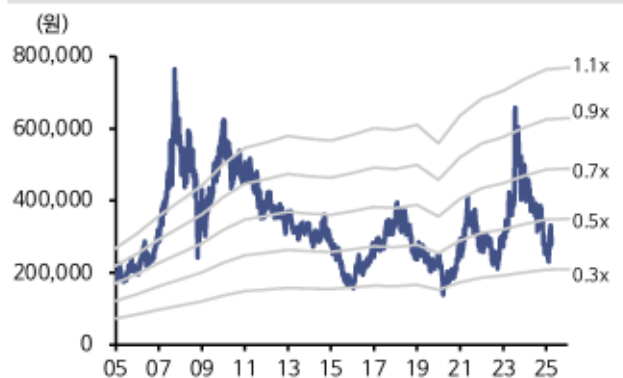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POSCO홀딩스 외국인지분율 추이



자료: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POSCO홀딩스 12개월 선행 PBR 밴드



자료: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아이패밀리에스씨

체질 개선 중

[출처] 하나증권 박은정 애널리스트

1Q25 Preview: 체질 개선 중

아이패밀리에스씨의 1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 559억원(YoY-3%), 영업이익 92억원(YoY-22%, 영업이익률 16%)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동사는 국내, 일본, 동남아 등에서 매출 강세를 보이며 연간 매출 2천억 원을 돌파,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분기별 추세를 보면, 1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한 이후(일본 돈키호테 입점 물량 90억원, 일시에 반영), 2~4분기에 이를 넘어서지 못하며, 기업 가치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

였다. 이번 1분기는 전년도 높은 기저의 영향으로 매출과 이익의 감소 불가피하나, 국내 분기 최대 매출 추세, 해외는 지역 점점 확대 및 물량 증가 등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며 전년도에 근접한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의 실적 모멘텀은 1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나아질 전망이다.

국내 +10%, 해외 -7%(돈키호테 제외 +19%)

▶화장품 부문은 매출 549억원(YoY-3%), 영업이익 93억원(YoY-23%, 영업이익률 17%)으로 전망된다. 국내와 해외 매출은 각각 170억원, 378억원으로 전년동기비 각각 +10%, -7%로 예상된다. 돈키호테 입점 물량을 제외한 해외 매출은 19%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①국내는 올리브영이 분기 최대 매출 예상하며,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 이는 제품 출시 효과에 기반한 것으로, 동사는 지난해 11월 대표 제품인 쥬시래스팅틴트 리뉴얼 제품(더쥬시) 출시 이후 여전히 올리브영 색조 부문 순위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또한 더쥬시 출시 이후 싱글새도우, 더쥬시알치크, 립매트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②해외는 국내 수요 확대와 함께 수출 흐름이 동반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중이 가장 큰 일본향 매출은 145억원으로 추정되며(YoY-28%, 돈키호테 제외 시 +29% 전망), 더쥬시 등 신제품과 앤드바이롬앤(그레이쥬 등 신제품)의 기여도가 컸다. 동남아는 소비자 관심도 확대로 인해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베트남/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미국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아마존 및 틱톡샵 대응을 동사가 직접 진행 중이다. 월별 변동은 있으나, 매출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③영업이익률은 매출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4%p 하락 가정했다.

▶웨딩 부문은 매출 11억원, 영업손실 1억원 예상된다.

2025년: 국내 강세 + 해외 확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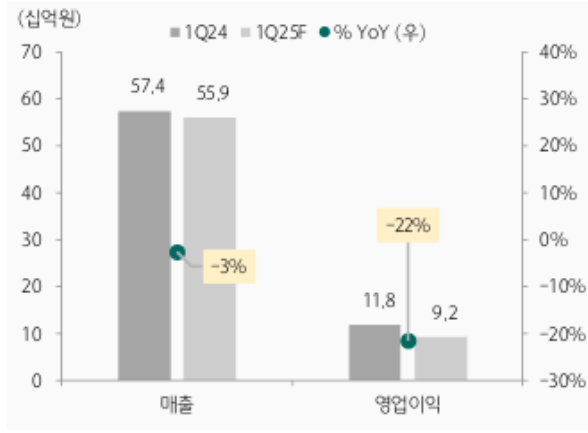
아이패밀리에스씨의 2025년 실적은 연결 매출 2.4천억원(YoY+16%), 영업이익 420억원(YoY+25%, 영업이익률 18%)으로 전망한다. 국내와 해외 매출 성장률을 각각 14%, 17%로 반영했으며, 제품 기획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랜드 롬앤에 대한 글로벌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며, 신제품 효과를 바탕으로 2분기부터 해외 확장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패밀리에스씨에 대한 투자의견은 BUY, 목표주가는 3.5만원을 유지하며, 중소형주 핵심 종목으로 제안한다. 현재 주가는 12M P/E 9.5x 수준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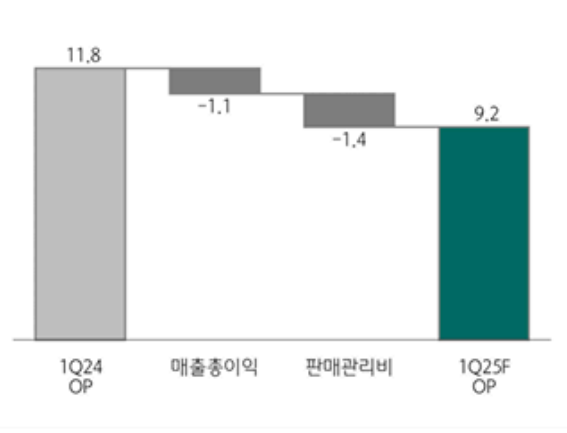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85.3	148.7	204.9	237.4
영업이익	9.5	24.0	33.6	42.0
세전이익	10.0	24.7	34.3	42.8
순이익	7.6	20.0	28.3	33.4
EPS	453	1,166	1,645	1,936
증감율	70.94	157.40	41.08	17.69
PER	13.75	11.28	11.36	9.95
PBR	2.11	3.28	3.36	2.59
EV/EBITDA	8.70	8.38	8.84	6.48
ROE	16.65	33.55	34.33	29.81
BPS	2,953	4,011	5,565	7,422
DPS	32	79	79	79

도표 2. 아이패밀리에스씨 1Q25F 연결 실적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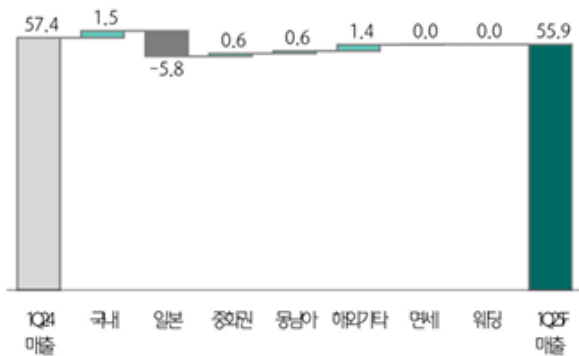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3. 아이패밀리에스씨의 1Q25F 손익 변동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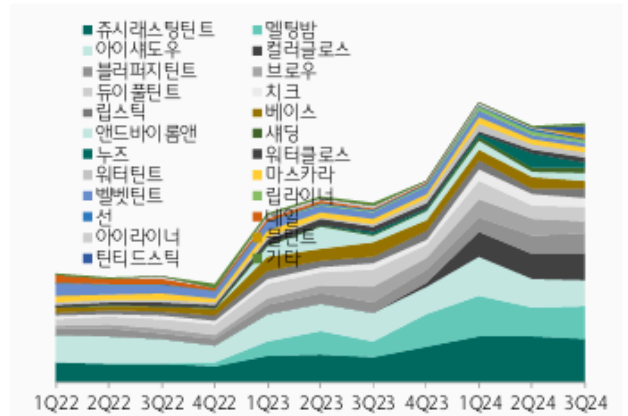
주: 판매관리비 1Q24 87억원 → 1Q25F 102억원 (-14억원)
자료: 하나증권

도표 4. 아이패밀리에스씨의 1Q25F 매출 변동 (YoY)
: 국내 +15억원, 해외 -31억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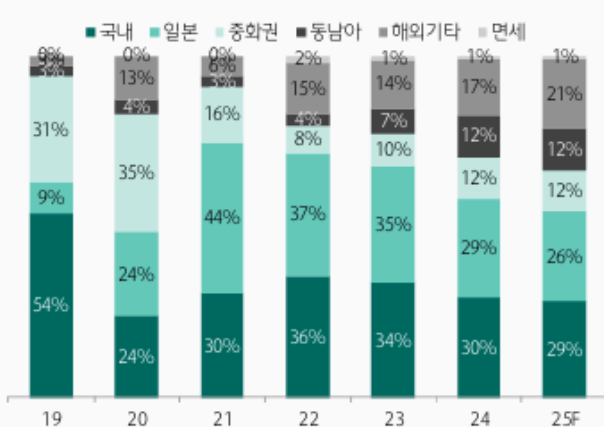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5. 아이패밀리에스씨의 품목별 매출액 추이
: 신규 품목이 추가 되며 균형적 성장 나타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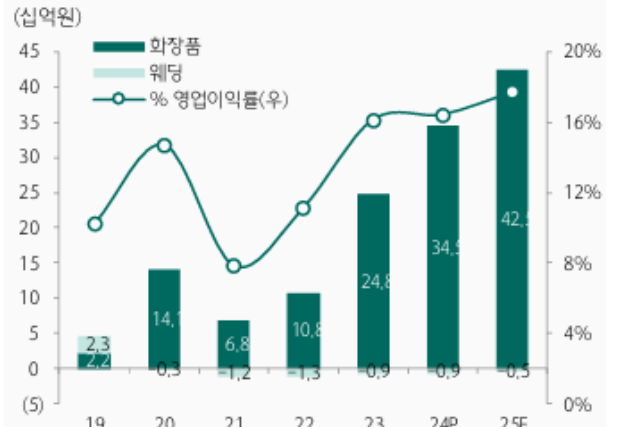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6. 아이패밀리에스씨의 지역별 매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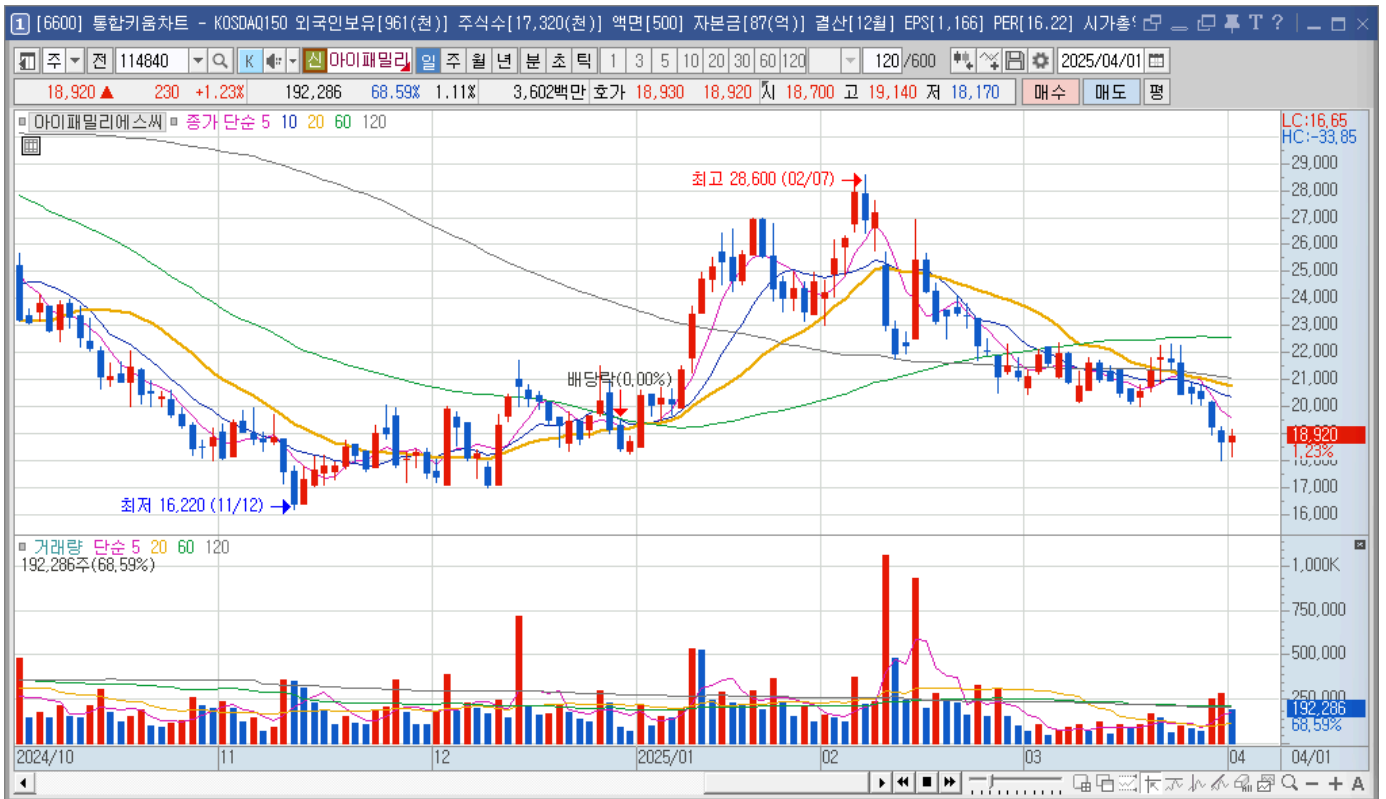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7. 아이패밀리에스씨의 부문별 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하나증권



칩스앤미디어

20년 이상 업력의 비디오 IP 기술 선도 기업

[출처] 한국IR협의회 백종석 애널리스트

칩스앤미디어는 비디오 IP 전문기업

칩스앤미디어는 비디오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 개발/판매 전문기업. 2024년 기준 매출 비중은 라이선스 56.1%, 로열티 38.8%, 용역 5.1%

시스템 반도체 산업 내 IP 개발/판매 사업 전망은 밝음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Fabless, Foundry, DSP(디지털솔루션파트너), IP 기업, EDA(전자설계자동화) tool 기업, 후공정 기업 등으로 기업 간 역할별 분업화 트렌드 뚜렷. 시스템 반도체 산업 내 IP 기업들도 점차 전문화 추세. IP 기업 중 글로벌 대표 기업은 ARM임. 국내 상장 IP기업은 동사 포함 3개사가 존재하나 칩스앤미디어의 지위 견고. 칩스앤미디어 외에 유의미한 수익성을 기록하는 IP 개발/공급사가 아직 없기 때문. 향후 IP 개발/판매 사업의 전망은 밝음. 이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 AI, 자율주행 등 고부가 칩 개발이 증가하며 IP 기업의 역할 확대가 예상되고,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며 중화권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의 각종 칩 개발 증가로 IP 수요 증대가 기대되기 때문

2025년 라이선스 중심으로 실적 성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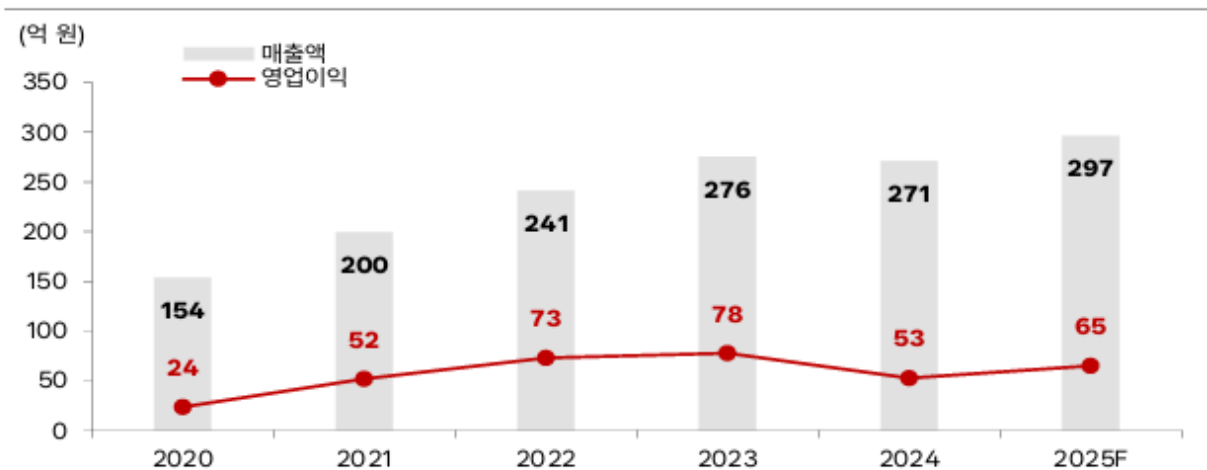
2024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271억 원(-1.8% YoY), 53억 원(-32.1% YoY) 기록. 매출액은 차량, 가전향 개발 수요와 모바일 개발 수요가 양호했음에도 지역별로 중국, 일본 고객의 개발 수요가 감소하며 아쉬운 실적을 시현. 2025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296억 원(+9.5% YoY), 65억 원(+24.0 YoY) 전망. 라이선스 중심 매출액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글로벌 빅테크 신규 프로젝트 증가 및 중국 AI반도체 개발 확대, NPU(신경망처리장치) IP 관련 고객 확보 등이 기대되기 때문. 매출액 증가 효과, 제품믹스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익도 기대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200	241	276	271	296
YoY(%)	29.7	20.6	14.4	-1.8	9.5
영업이익(억원)	52	73	78	53	65
OP 마진(%)	26.0	30.3	28.2	19.5	22.1
지배주주순이익(억원)	63	100	-267	100	113
EPS(원)	325	505	-1,282	481	537
YoY(%)	225.1	55.4	적전	흑전	11.7
PER(배)	36.4	14.0	N/A	32.7	32.3
PSR(배)	11.4	5.7	24.1	12.1	12.3
EV/EBITDA(배)	30.7	12.3	60.5	41.5	41.2
PBR(배)	6.0	3.5	9.1	4.3	4.3
ROE(%)	17.8	24.9	-46.5	13.5	14.1
배당수익률(%)	0.7	1.4	0.0	0.6	0.6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칩스앤미디어 연도별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자료: 칩스앤미디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16,360 ▲ 310 +1.93% 95,210 97.81% 0.46% 1,550백만 호가 16,360 16,350 시 16,220 고 16,640 저 15,880 매수 매도 평



16,360 ▲ 310 +1.93% 95,210 97.81% 0.46% 1,550백만 호가 16,360 16,350 시 16,220 고 16,640 저 15,880 매수 매도 평

